



즉시 배포용: 2024년 3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차선양보법이 모든 고속도로 정차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을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재차 강조**

*운전자는 운행이 어렵거나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을 이동*

차선양보법은 운전자, 도보 통행자, 고속도로 근로자, 비상 대원 등을 보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모든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뉴욕의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이 모든 차량으로 곧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운전자들은 도로에 정차된 모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을 이동하는 등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차량이 다가오는 경우,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을 이동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에서 문제가 생긴 차량 바깥에 있다가 사망한 사람은 37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도로 인근에서 약 300명의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합니다. 차선양보법은 비극을 막고 뉴욕의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최초 발효된 것은 2010년이고, 도로에 정차 중인 비상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수 차례 확대 적용되어 재난 차량, 고속도로 근로자 차량, 견인차 등에 적용됩니다. 2023년 Hochul 주지사는 정차 중인 모든 차량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 근처를 지날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차량에서 멀리 차선을 변경
-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속도 완화.

또한 오늘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GTSC)는 라디오와 소셜 미디어, 기타 야외 수단을 동원하여 갓길이나 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보았을 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이동(Slow Down, Move Over)”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50개 주는 모두 "차선양보(Move Over)"법을 제정해 사법 집행 공무원과 기타 비상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1/3만이 해당 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부(DMV) 커미셔너 겸 주지사 직속 교통 안전위원회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선양보법의 확대는 뉴욕주를 안전하게 거주하고 근무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주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습디만, 만약 멈추어야만 할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로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차 중인 차량을 보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청장인 Frank G. Hoare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도로 정차 차량으로 보호 조치를 확대하여 차선양보법을 강화하는 것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러한 법안은 운전자와 비상 대원, 스루웨이 인력, 기타 도움이 필요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변경하십시오. 스루웨이를 순찰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신 뉴욕주 경찰 Troop T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인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차선양보법을 확대해 도로의 모든 정차 또는 이동이 어려운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도로 사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의 도로에서 차량 바깥에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 37명입니다. 차선양보법을 확대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청장 대행인 Steven G. Jam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운전자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 도로 안전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선양보법을 확대하고 꼼꼼히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주 전역에서 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욕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en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의 차선양보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었습디다. 그리고 법은 모든 정차 또는 이동이 어려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확대 조치를 통과시켜주신 주지사와 제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Lea Webb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운전자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차선 양보법을 뉴욕 주민에게 다시 상기시켜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이며 도로 정차 차량에 접근할 때 차선을 양보함으로써 우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 기뻐하며, 모든 이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TSC 웹사이트를 방문해 [차선양보법](#) 및 기타 고속도로 안전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